

## 200자 안내

### 법구경 (1·2)

거해스님 엮음

법구경의 빠알리어 경명은 '담마빠다(Dhammapada)'다. 담마빠다는 두 단어를 합친 말로서 '담마'는 진리, '빠다'는 길을 뜻한다. 이 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 10년간 남방에서 수행한 거해스님이 부처가 직접 쓰셨던 빠알리어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다.

고려원 / A5신 / 538, 522면 / 각 6800원

### 러시아 리포트

서정식 지음

국민일보 국제부에 재직중인 필자의 러시아 취재기. 필자는 아직 모스크바 중심가의 스타라야플로샤지에 있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물에 붉은기가 휘날리고 있을 때의 소련과,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소련이란 거함이 서서히 침몰해가던 1991년 초가을의 소련에서 바라본 그들의 삶을 통해 CIS와 소련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청한 / A5신 / 280면 / 4500원

### 기업 경영이념

정몽준 지음

14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현대학원 이사장인 저자가 지난 82년 발간했던 기업경영이론의 3판. 저자는 동구와 소비에트 해체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의 우위성을 단적으로 입증해주었으나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이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확고한 신념체계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울산대출판부 / A5신 / 298면 / 6000원

### 똥이 자원이다

전경수 지음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인 저자의 환경론. 문명이 자연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 삶은 자연보다 한발 앞서서 파괴되기 마련이다. 문명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오다가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이제 사람이 그 도구의 하수인도 되고 파괴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 문명의 사

슬을 박차고 일어서서 문명개념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통나무 / A5신 / 224면 / 5000원

### 안개꽃 (4)

김용운 지음

82년 첫 출간되어 그해 한국문학상을 수상 하였던 「안개꽃」의 완결편. 분당 등 신도시 탄생 배경으로 대중사회의 징후를 나타내면서 급격히 변모하는 90년대 세상풍속도를 1·2·3권의 주요 인물이 새로운 사회와 사건을 만나면서 겪는 애증, 갈등, 별리를 통해 그리고 있다.

문예출판사 / A5신 / 350면 / 4500원

### 사자에게서 온 전화

스코트 로고 외 지음 / 김창수 옮김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산 사람들에게 어떤 전갈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 통신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죽은 사람들이 보낸 여러 형태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추적한 책. 초심리학자 두명이 2년간 유명 전화현상을 추적한 보고서이다.

책세상 / A5신 / 244면 / 4000원

###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유석춘 엮음

막스 베버의 동양사회론이 동양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구조를 해석하는 데 기여해온 측면은 무엇인가? 또한 동양사회론의 가능성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정리한 책. 스펜글러의 「베버의 중국사회론 비판」 등을 통해 '역사발전의 대안'이 그의 동양사회론에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남 / A5신 / 428면 / 8500원

### 영웅을 기다리며

소준섭 지음

전민련 부대변인을 역임한 저자의 시론으로 국외적 요인이 내부적 모순과 어우러져 국내적으로도 전환기적 혼란과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확실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지 못하는 진보세력의 모든 예비적 대안들을 거리낌없이 제시하고, 논의를 통해 대중의 동의와 실천적 검증에 기초한 과학적인 전망을 모색하고자 주장한다.

새날 / A5신 / 172면 / 3500원

### 노자없는 나그네 길

서정주 지음

희수를 넘긴 나이에도 또다른 학문의 길을 찾아 곧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날 원로시인 서

정주씨의 문필생애 60년을 정리하는 산문선. 아버지가 박하분 풍기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마치 여자 처용과도 같았던 어머니, 그가 만났던 김소월 부자, 갯 참모 같던 익살꾼 이상 등 그가 시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신원문화사 / A5신 / 308면 / 4500원

### 세상의 모든 아침

파스칼 까냐르 지음 / 유정림 옮김

17세기 프랑스에 실존했던 두 음악가, 쟁트 콜롱브와 마랭 마래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소설. (원제 : Tous les matins du monde) 작가 파스칼 까냐르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프랑스 작가로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삶 또는 죽음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사계절 / A5신 / 184면 / 3800원

### 맷돌

안토니 드 멜로 지음 / 정상진 옮김

인도 출신의 예수회 신부인 저자가 신앙, 종교, 철학 등 인생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300여편의 우화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쓴 책. 87년 저자 사망후에 발행된 'Song of the bird', 'Taking flight'를 완역하여 우화, 종교, 철학으로 분류하고 재편집한 책으로 '자신에 대한 빛이 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타임기획 / A5신 / 374면 / 4500원

### 혼의 소리

주동후 지음

64년 등단한 작가의 첫 창작집. 표제작을 비롯하여 어린시절 기억의 원형으로 남아있는 전쟁의 체험을 이야기한 「제5계절」 「유년의 꿈」 상실된 젊음을 그린 「여름과도」 「동등」 등과 80년 5월에 광주에서 겪었던 체험, 그 상처의 깊이를 이야기한 「4개의 오월」 「현장」 등 총 12편의 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규장각 / A5신 / 326면 / 3800원

### 하늘 가까운 마을에서

송영 지음

지난 90년 간행된 장편 「금지된 시간」과 「또 하나의 도시」에 이어서 작가가 금호동을 무대 삼아 쓴 중편소설. 산동네 빈민촌의 형성전말과 그 빈민촌에 사는 한 개인의 사랑과 젊은 날의 꿈과 좌절을 화자인 '나'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작품으로, 앞의 두 소설보다 금호동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한벗 / A5신 / 262면 / 4000원

### 병원은 오늘도 만원이다

나산 아쟁 지음 / 강명희 옮김

지구촌에서 제일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인

노벨상 중 생리,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공적을 소개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병과 싸워 이겨냈는가를 소개한 책. 결핵, 소아마비 등의 치료법과 예방백신을 개발한 20명의 연구과정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의보감의 저자이며 한반도 제일의 실증의학자인 허준의 업적도 소개하고 있다.

지경사 / A5신 / 188면 / 3000원

### 노태우·전두환

박종열 지음

80년 해직기자이기도 한 동아일보 '여성동아부' 차장인 저자가 88년부터 「신동아」와 「여성동아」에 써온 글을 모은 책. 5공과 6공의 파워게임 와중에서 활약한 주요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고뇌와 항변,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주요사건 주역들의 육성을 채록한 것으로 김복동, 이명박, 정몽준씨 등 14명의 인터뷰도 실었다.

인본 / A5신 / 484면 / 6000원

### 용꿈을 꾸는 날은 한강으로 가라

라야 실크 지음 / 안영옥 옮김

꿈은 누구나 꾸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난 후에는 더러 잊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의 심리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640여가지의 꿈을 해석한 책으로 개인의 잠재의식을 여섯가지로 나누고 개인의 유형별 꿈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태학당 / A5신 / 248면 / 4000원

### 계간지

### 시와 시학(1992년 여름)

[시와 시인을 찾아서] —超 고은 편

[특별연재] ▲박두진 「수석영가Ⅶ」 ▲조병화 「시로 쓰는 자서전⑥」

[특집] 오늘의 시인들② : 민중서정시계열(고재종 / 고희열 / 김남주 / 도종환 / 안도현 / 임동환 / 윤재철)

[그림으로 그리는 현대시] ①이육사 「광야」 (이만익)

[정지용탄생90주년기념특집] ▲I. 제4회 정지용문학상 발표 ▲II. 현대시인집중연구⑥ 정지용문학상 수상시인 특집, 오세영편 ▲III. 정지용시인연구

[내가 좋아하는 한편의 시] 강영숙 / 김태순 / 박은희 / 손숙 / 양화선 / 홍윤숙

[신작특집] 김남조 / 김광림 / 김대규 / 한광구 / 전영애

[문제작 재조명] 신경림 「農舞」 ▲「농무」론 (김현자) ▲서사시의 시적 수용(고형진) ▲

「農舞」, 이렇게 써어졌다(신경림)

[내가 만난 시인들] 박봉우(이근배)

[한국한시를 찾아서] 과거제의 실시와 고려 전기의 漢詩(김진영)  
 [교과서 수록시 평설] 이병기 「오동꽃」(김봉군)  
 [신인작품 당선작] 양승준 / 한이각 / 박영호  
 [예술칼럼] ▲역사의 들길에서 만난 화가들(이석우) ▲시와 음악과의 만남(김미애) ▲시학과 의학의 사이에서(손기섭)  
 [신작소시집] 연작장시: 약속의 땅, 기약없는 세월(朴利道)  
 [서평] 외로움 속의 두 목소리(이승원)  
 [해외논문] The Art of SEAMUS HEANEY (Kevin O'Rourke)  
 시와시학사 / A5신 / 356면 / 5000원

### 창작과 비평(1992년 여름)

[좌담]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학(최원식 / 윤지관 / 유중하 / 조만영)  
 [논문] ▲로렌스 소설의 전형성 재론(백낙청) ▲'시와 현실주의'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황정산) ▲일제시대의 민족협동전선과 절충주의 문학론(원종찬)  
 [시] 박노해 / 마종하 / 김용택 / 박찬 / 안도들 / 이상목 / 고정희  
 [시론] ▲한국 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박승욱) ▲맑스주의 발전을 위한 시론(김호균) ▲1980년대의 교훈(I. 윌러스틴)  
 [소설] ▲돌맹이 두 개(김만옥) ▲들(윤정모)  
 [서평]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과 소망(민영)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새 경향(김양선) ▲운동의 동반자로서의 문예비평(임진택)  
 창작과비평사 / A5신 / 454면 / 5000원

### 실천문학(1992년 여름)

[특집] 90년대 문학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민족문학의 올바른 편제를 위한 출발점(김진경) ▲불을 찾아서(김명인) ▲현단계 노동문학의 새로운 모색(이병훈) ▲희망과 연대의 존재로서 노동자계급의 삶과 해방(이재현) ▲현단계 문예운동의 '반성'과 모색(전승주)  
 [오늘의 민족문학] ▲시: 오늘, 시는 죽었다(김형수) ▲소설: 전망의 부재와 소설의 길(임홍배)  
 [장편연재] 海賊(김중태)  
 [초점] '포스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득재)  
 [시론] 외세문제와 통일(남정현)  
 [서평] 리얼리즘시의 이론적 탐색과 역사적 규명(김윤태)  
 [소설] ▲소장수(이상락) ▲죽음의 굿판(위기철) ▲깊은 샘(윤동수)  
 [시] 조태일 / 이시영 / 김만수 / 김윤배 / 민병일 / 최은희 / 조현설 / 심호택 / 조성국  
 [리얼리즘 논쟁] ⑥리얼리즘의 아름다움(김태현)

실천문학사 / A5신 / 408면 / 5000원

### 격월간지

#### 녹색평론 (제4호)

[대담] 「토지」의 작가가 말하는 생명, 공해, 일본문제(박경리 / 정현기)  
 [논문]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이경재) ▲山川과 사람①(류도혁) ▲집에서 하는 환경운동(서형숙) ▲尺度로서의 자연(웬델 베리) ▲오염된 철새들-우랄의 核慘事(아부우치 마사유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목마를 타고 있다(제임스 골드스미스) ▲유린되는 티베트(데이빗 니콜슨-로드) ▲나쁜 요술-테크놀로지의 실패(제리 맨더 / 캐서린 잉그램) ▲산업사회를 넘어서 공생의 사회로: 이반 일리치의 대화②(박홍규 편역)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트리스탄 사람들의 이야기  
 [시] 黃善河 / 강현국 / 이재무  
 [서평] 김중철 / 박혜경  
 녹색평론사 / A5신 / 158면 / 2500원

### 학술지

#### 韓國文化 (제12집)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엮음  
 [논문] ▲한국 근대문학의 아나키즘 체험 연구(조남현) ▲조선 후기 人性論의 혁신에 대한 문학의 반응(조동일) ▲姜堯의 개화사상과 외교활동(주승택) ▲조선 후기 樂府의 詩歌觀(김대행) ▲병자호란시 言官의 위상과 활동(정옥자) ▲조선 후기 士族의 촌락지배(김현영) ▲楊齋 李書九의 학문과 정치적 지향(유봉학) ▲湛軒 洗大容의 사회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신용하) ▲17세기후반~18세기 초 洪萬宗의 會通思想과 역사의식(한영우) ▲조선 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김낙필) ▲16세기말 四禮書의 성립과 禮學의 발달(고영진) ▲「通信使騰錄」의 사료적 성격(하우봉)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이영학)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 A5신 / 588면 / 비매품



人間은 思考하고  
 歷史는 記錄으로 남는다.  
 冊은 賢者의 지혜를  
 紙는 知性의 베풀.

#### 호수에 내리는 별

- 서원웅 동시집  
 - 앞산 진달래 입에 물고, 여린 다래  
 따먹던 어린시절의 서정시



#### 무등산 - 박선희

- 그 유래와 전설 · 경관  
 - 광주의 인물과 주변의 歷史誌



#### 魂의 소리 - 주동후소설집

- 텅텅한 막걸리같은 우리네의 정감이  
 담겨져 있는 성장소설

#### 맥(脈) - 김용휴

- 청소년에게 주는 글  
 - 어린이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忠孝이야기

#### 자그만 숲의 사랑이야기

- 박덕은 젓가슴 연작시  
 - 어머니의 넉넉한 품에 안겨 세계명화와  
 함께 읽는 사랑의 영작시

#### 욕망을 나르는 수레

- 곽봉수  
 - 온통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방부제생산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던  
 백서

#### 神을 부르는 노래소리

- 김연자 영적세계 체험기  
 - 세계 여러나라의 무속신앙을 체험한  
 작가가 맑은 영혼으로 들려주는  
 神과 人間의 이야기



#### 꽃들의 이야기

- 전원범 동시집  
 - 해맑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그려낸  
 따스한 봄바람의 이야기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새생명빌라내  
 전화 (062) 223-3222, 676-5222  
 FAX (062) 264-7028  
 도서출판 규장각